

임실군, SNS 홍보 대폭 강화

뉴미디어팀 신설...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채널 개편·참신 콘텐츠 기획

임실군이 올해 뉴미디어팀을 신설한 가운데 공격적이면서도 전방위적인 SNS 홍보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군은 홍보담당관 산하 SNS를 전담하는 뉴미디어팀을 신설, 확산력이 높은 SNS를 공략하기 위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운영 방안을 전면 개편하고 새 단장에 나선다.

뉴미디어팀은 긍정 홍보와 더불어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생활 인구, 잠재 방문객의 적극 유치를 위해 파급력이 큰 SNS를 적극 활용, 확대하기 위해 신설됐다.

특히 이번 SNS 채널 개편은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실시간으로 풍성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다.

개편된 채널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임실군의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며 군민과 더불어 전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로서 SNS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전 주요 긍정 소식을 주로 다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지역문화를 알리고 신선한 문화 자극을 주기 위해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임실의 숨겨진 마을 명소와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우리 마을을 소개합니다' △사계절 축제에 맞춰 사계절 꽃 천지 임실을 소개하는 '임실 뷰맛집' 여기가 꽃천지! △특히 임실엔(N) 우리가 있어! 를 통해 임실군의 문화와 일상을 주제로 한 숏폼 영상 등을 직접 제작하여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자 한다.

숏폼 콘텐츠는 뉴미디어팀 소속 9급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기획·출연하고 출연자를 섭외하는 등 유투드 플레이어로 활약, 때론 재밌게, 때론 감동적이게, 때론 센스있게 수시로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할 계획이다.

이미 올해 9급 팀원이 모델이 되어 올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숏폼 영상은 4,876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공식 유튜브 채널 임실엔TV는 개교 우민 육십이와 지역 주민 강나루 씨의 출연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임니 시리즈'는 올해 시즌3를 새롭게 선보인다.

'임니 시리즈'는 2023년 '임니 어디가'를 시작으로, 지난해 '임니 왜 불러'에 이어 올해 '임니, 배고파' 미식 여행으로 꾸며진다.

'임니 배고파'는 임실군수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임실맛집'을 직접 찾아가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개편된 유튜브 채널에서는 위생, 서비스, 맛 등 엄격한 현장 심사를 통과한 임실군 공식 맛집을 소개함으로써 임실 방문객들에게 임실만의 특색있는 맛과 흥미를 알리고 신뢰할 수 있는 미식 여행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실군이 올해 뉴미디어팀을 신설한 가운데 공격적이면서도 전방위적인 SNS 홍보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다. 또한 군은 '2025 임실방문의 해'를 기념하여 SNS 채널을 통해 사계절 축제와 관광 명소를 소개하고, 임실의 전통과 자연경관, 특산물 등 지역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우리 임실군의 다양한 매력을 양질의 콘텐츠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전파할 계획이다.

더불어 뉴미디어팀에 SNS에 취약한 고령층 주민들을 위하여 농민 교육 및 이장회의 등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홍보활동을 통해 SNS 채널 참여와 활용하는 법을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하는 등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의 SNS 채널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 전략을 통해 지역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다"며 "2025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SNS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임실의 자연, 문화, 특산물 등을 트렌디한 방식으로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임실을 방문하도록 유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 연구진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긴밀한 협력과 지원

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치매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 검사 △정밀 검사에 필요한 대상자의 의료 연계 △치매 조기 예측과 예방 관리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순창군과 조선대는 치매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군은 치매 조기 예측 검사를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1차 검사(치매 인지 선별 검사, 혈액 검사, 유전자 변이 검사)를 제공하며,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주민들은 2차 정밀 검사(MRI, 아밀로이드-PET, 마이크로바

이음 검사와 전문의 진료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게 된다.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은 "조선대학교는 지역사회 치매조기진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협력해 왔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의 첨단 치매 예측 기술을 활용해 순창군민들이 보다 정밀한 치매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조선대와의 협업을 통해 군민들에게 선진화된 치매 진단 기술을 도입하고,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체계적인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군이 조선대학교·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과 손잡고 지역사회 치매예방을 위한 공동 협력을 본격화한다. 군은 지난 14일 조선대학교에서 조선대학교와 치매국책연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 연구진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긴밀한 협력과 지원

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치매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 검사 △정밀 검사에 필요한 대상자의 의료 연계 △치매 조기 예측과 예방 관리 체계 구축을 골

자로 한다. 이를 통해 순창군과 조선대는 치매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군은 치매 조기 예측 검사를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1차 검사(치매 인지 선별 검사, 혈액 검사, 유전자 변이 검사)를 제공하며,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주민들은 2차 정밀 검사(MRI, 아밀로이드-PET, 마이크로바

이음 검사와 전문의 진료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게 된다.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은 "조선대학교는 지역사회 치매조기진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협력해 왔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의 첨단 치매 예측 기술을 활용해 순창군민들이 보다 정밀한 치매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조선대와의 협업을 통해 군민들에게 선진화된 치매 진단 기술을 도입하고,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체계적인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군이 조선대학교·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과 손잡고 지역사회 치매예방을 위한 공동 협력을 본격화한다. 군은 지난 14일 조선대학교에서 조선대학교와 치매국책연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 연구진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긴밀한 협력과 지원

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치매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 검사 △정밀 검사에 필요한 대상자의 의료 연계 △치매 조기 예측과 예방 관리 체계 구축을 골

자로 한다. 이를 통해 순창군과 조선대는 치매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군은 치매 조기 예측 검사를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1차 검사(치매 인지 선별 검사, 혈액 검사, 유전자 변이 검사)를 제공하며,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주민들은 2차 정밀 검사(MRI, 아밀로이드-PET, 마이크로바

이음 검사와 전문의 진료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게 된다.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은 "조선대학교는 지역사회 치매조기진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협력해 왔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의 첨단 치매 예측 기술을 활용해 순창군민들이 보다 정밀한 치매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조선대와의 협업을 통해 군민들에게 선진화된 치매 진단 기술을 도입하고,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체계적인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 올해도 이어진다

남원시,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보장

남원시는 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 발생 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험 적용 대상은 보험 기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남원시민(등록의 국민 포함)이며, 질병·교통사고 등 지급 제한 사항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대 1천만 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대 3천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

장애 시 최대 1천만 원,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4, 6, 8주 진단 시 20, 40, 70만 원 등 총 22개 항목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남원시 시민안전보험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보험과 상관없이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고 후 보험 청구를 하지 못했다더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전담 콜센터(02-785-9611)로 직접 문의한 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조선대, 업무협약 체결

지역사회 치매예방 공동 협력

순창군이 조선대학교·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과 손잡고 지역사회 치매예방을 위한 공동 협력을 본격화한다.

군은 지난 14일 조선대학교에서 조선대학교와 치매국책연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 연구진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긴밀한 협력과 지원

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치매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 검사 △정밀 검사에 필요한 대상자의 의료 연계 △치매 조기 예측과 예방 관리 체계 구축을 골

자로 한다. 이를 통해 순창군과 조선대는 치매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군은 치매 조기 예측 검사를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1차 검사(치매 인지 선별 검사, 혈액 검사, 유전자 변이 검사)를 제공하며,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주민들은 2차 정밀 검사(MRI, 아밀로이드-PET, 마이크로바

이음 검사와 전문의 진료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게 된다.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은 "조선대학교는 지역사회 치매조기진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협력해 왔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의 첨단 치매 예측 기술을 활용해 순창군민들이 보다 정밀한 치매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조선대와의 협업을 통해 군민들에게 선진화된 치매 진단 기술을 도입하고,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체계적인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군이 조선대학교·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과 손잡고 지역사회 치매예방을 위한 공동 협력을 본격화한다. 군은 지난 14일 조선대학교에서 조선대학교와 치매국책연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 연구진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긴밀한 협력과 지원

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치매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 검사 △정밀 검사에 필요한 대상자의 의료 연계 △치매 조기 예측과 예방 관리 체계 구축을 골

자로 한다. 이를 통해 순창군과 조선대는 치매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군은 치매 조기 예측 검사를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1차 검사(치매 인지 선별 검사, 혈액 검사, 유전자 변이 검사)를 제공하며,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주민들은 2차 정밀 검사(MRI, 아밀로이드-PET, 마이크로바

이음 검사와 전문의 진료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게 된다.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은 "조선대학교는 지역사회 치매조기진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협력해 왔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의 첨단 치매 예측 기술을 활용해 순창군민들이 보다 정밀한 치매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조선대와의 협업을 통해 군민들에게 선진화된 치매 진단 기술을 도입하고,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체계적인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군이 조선대학교·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과 손잡고 지역사회 치매예방을 위한 공동 협력을 본격화한다. 군은 지난 14일 조선대학교에서 조선대학교와 치매국책연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 연구진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긴밀한 협력과 지원

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치매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 검사 △정밀 검사에 필요한 대상자의 의료 연계 △치매 조기 예측과 예방 관리 체계 구축을 골

자로 한다. 이를 통해 순창군과 조선대는 치매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군은 치매 조기 예측 검사를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1차 검사(치매 인지 선별 검사, 혈액 검사, 유전자 변이 검사)를 제공하며,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주민들은 2차 정밀 검사(MRI, 아밀로이드-PET, 마이크로바

이음 검사와 전문의 진료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게 된다.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은 "조선대학교는 지역사회 치매조기진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협력해 왔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의 첨단 치매 예측 기술을 활용해 순창군민들이 보다 정밀한 치매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조선대와의 협업을 통해 군민들에게 선진화된 치매 진단 기술을 도입하고,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체계적인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소식통

남원시 어울림도서관 영어 독서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 어울림도서관은 상반기 과정으로 오는 3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하반기 과으로 9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영어 독서 프로그램 'English 스토리 타임'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전문 영어 강사와 함께 주별 새로운 영어책 읽기를 진행하며, 줄거리 공유하기, 영어 노래 배우기, 영어 게임 운영 등 영어와 관련된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 내용을 포함하여,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시간을 진행한다.

신청 가능 대상은 유아(2019년~2020년) 및 초등(2017년~2018년)으로 각 반당 6명씩 참여 가능하며, 상·하반기 매주 금요일 15시 40분과 16시 45분에 어울림도서관 2층 영어놀이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신청은 남원시공공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상반기 신청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하반기 신청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가스안전장치 설치·교체 지원

임실군이 가스를 쓰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레인지 사용 가구에 타이머를 보급하는 '가스안전장치(타이머) 보급사업' 대상 가구를 이달 28일까지 모집한다.

그동안 군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2,997가구에 가스 타이머를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여력이 없는 고령자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안전장치 보급을 통해 취급 부주의로 인한 과열 화재로 재산 및 인명피해 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했으며, 올해는 9,747천원 예산으로 171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교체를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군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 가구 확정 및 시공업체 선정 등을 진행한 뒤 8월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보건소,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확대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2025년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질환이 확대되고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가능 질환은 기존 1,272개 질환에서 66개 추가해 1,338개로 확대되었고, 소득·재산 기준은 담초 기준 중위소득 성인 120%미만, 소아30%미만에서 연령 구분없이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항목은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 치료에 드는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그 외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도 기준 적합 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후 시 보건소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0-7963)로 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 희귀질환 환자와 가

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